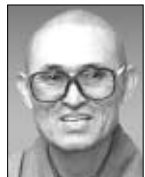


광명선원 수계법회 법문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은 3일 충북북교회관 대법당에서 봉행된 광명선원 보살수계 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백제불교문화대학 수계식
대전 백제불교문화대학 사제동학장(총남대 교수)은 3일 화관 법당에서 대학 이사장 장곡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와 호' 주제로 법문
수원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20일 오후 3시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에서 '불교와 호'를 주제로 법문한다. (031)251-1083



국제불광회 부산협 출범
부산 흥법사 주지 심상 스님은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대만 불광산사 방장 성운스님 초청, 국제불광회 부산협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제10회 장애우 나들이 행사
사단법인 우리는 선우 남지심 회장은 21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제10회 장애우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훈려장병 수계법회 봉행
서울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7일 충남 논산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훈려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즐거은 책가방' 홍보 열어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즐거은 책가방' 홈페이지를 열었다.



허길랑 씨 사무실 이전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허길랑 불상 목조각상은 7일 작품 전시관을 한국불교역사문화관(공사중) 입구로 옮겼다. (02)738-1117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4일 삼광사 황적당에서 불우 이웃돕기 100세대에게 1천만 원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추석 이웃돕기 바자회
대구 천태종 대성사 주지 문덕 스님은 1일 경내에서 불우 이웃돕기 추석 맞이 자비의 바자회를 열었다.



조계사에서 무료법률상담
종합법률사무소 사립과 법 대표 이홍주 변호사는 7일 서울 조계사 신행사무국에서 무료법률 상담봉사 활동을 벌였다.



고려대서 19차 학술발표
불교학연구회장 해주 스님은 6일 고려대 서관에서 '조선 선불교의 입제선에 대한 이해'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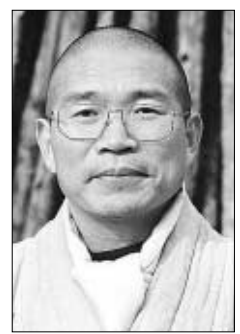


일일 무료 관법명상 실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목정배 총장은 4일 회관 설립전에서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초청, 개관 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장애인 재활자립교육에 주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원혜 스님

“장애인들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 진행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켰다.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복지관 직원들과 봉사활동은 해온 결과가 이렇듯 작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작은 규모의 시설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특히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애자모 지장탱화 점안식 봉행



포천 구담사(주지 지윤)는 7일 태야영가 천도를 위해 애자모 지장보살 탱화, 108동자상 점안식, 태야영가 49일 천도제 등의 입제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월운(봉선사 조실) 스님, 혜성(도선사 회주)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남대문밖 불교회 정기법회



서울 남대문경찰서 불교회(회장 신두호)는 지난 8월 21일 서대 경찰실에서 전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현봉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불교회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현봉 스님은 “3교대 등의 바쁜 일과 속에서 신심을 키워나가자”고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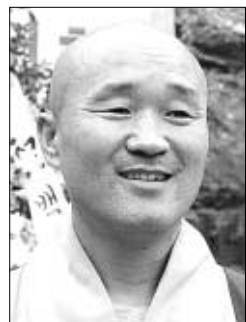
한솔종합복지관, 송편 나누기



성남시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9월 4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이용노인 등 총 250여 세대를 대상으로 ‘송편과 생활용품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주부 봉사자들이 도우미로 나섰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모색”

11번째 백고좌 원만회향 실상 스님



중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룬 가운데 9월 8일 회향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사진)은 백고좌 법회의 공덕을 오히려 불자들의 몫으로 돌렸다. “제가 한 것이라곤 스님들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한 일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찾아온 신도님들의 정성과 신심이 더욱 소중하지요” 실상스님은 신라시대부터 널리 행해지다 조선시대 사라져버린 전통 백고좌 법회를 지난 94년 처음으로 부활해 올해로 11번째 법석을 최근 원만회향 한 것. 또 하루 앞선 7일에는 백고좌 법회 원만회향을 자축하는 산사음악회를 가졌다. 스님은 계속해서 9월 20일부터는 법왕사 서울본원인 동광사에서, 내년 1월 10일에는 부산본원인 신광사에서 백고좌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박원구 기자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백고좌 법회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많은 호응과 구별의지를 보여준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신도님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법석이였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불자님들의 만족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매일 백명의 고승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가진 백고좌 법회는 조계종 원로 정무스님을 시작으로 매일 500여 명의 사부대

“생명공양운동 펼치겠습니다”

철도무사고 기원법회 조진규 철불협 의장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왕생극락 천도와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기원은 철도공무원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차원에서 고모-경산간 열차 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을 올 하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특히 ‘생명공양’ 운동을 전개기로 했다. 우선, ‘이웃과 함께 하는 철불협’,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철불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명공양 운동은 철불협의 실천목표가 될 것입니다. 미룰까지도 보호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넉넉히 배분과 나누는 철도공무원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해나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철도의 생명은 안전입니다. 국민들의 수송은 물론,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실어 나르는 동맥이기에 철도공무원 불자들의 사명감은 남다른 것입니다. 무사고 기원법회도 이 때문에 봉행하게 됐습니다” 9월 6일 서울 봉선사 법왕사에서 ‘철도 무사고 기원법회’를 봉행한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조진규(사진) 의장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모-경산간 열차 사고는

우리는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전국 불교 음악제
제 3회 전국불교음악제는 "우리는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라는 주제로 전국 12개 지회와 700여개의 전국 합창단 선별된 100여개의 합창단 1,200여명이 참여하여 불교음악인들의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국내 유일한 찬불가 대축제입니다.
청명하 가을빛이 어루어진 이곳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화희 가득한 찬탄의 법석(法席)에 참여하시어, 가슴에 울려 퍼지는 찬불가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9월 20일(토요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통일대불전
◆ 주 최 : 사(사)보불교음악협회 ☎ 021723-0440 ~ 1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 0531985-4404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교종, 대한불교천대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보문종, 불교총지중, 전국부구니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방송(BBS), 불교텔레비전(btn),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 (주)유성건설, 대구은행, (주)호성철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음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울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활짝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매당되는 증상(0)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나귀 감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